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顯祖實錄探險

매헌공梅軒公, 임란동안 의병군영義兵軍營을 떠나지 않았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사람들 저자

임란(壬亂) 7년간 전국에서 숱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義兵) 군세(軍勢)가 20만에 이르렀지만 근동(近洞)에서의 의병 활동으로 집과 군진(軍陣)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매헌(梅軒) 권사민(權士敏)은 임란 내내 집(慶州府)과 멀리 떨어진 팔공산(八公山) 및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지냈다.

문경당교회맹聞慶唐橋會盟

경주, 연일, 영천 출신 의병들이 가장 멀리 나간 싸움은 문경 당교에서 벌인 7일간(선조 26년 7월 21~28)의 격전이었다. 경상좌우도의 요충지이자 경상도에 포진한 적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영남의병장 50명이 모였다. 경주의병장慶州義兵將이 15명 권사민(權士敏), 권응생(權應生), 권여정(權汝精) 등으로 가장 많았고 영천, 울산, 영주 등 7군에서 모인 의병들은 당교회맹唐橋會盟에 서약하고 밤낮 7일간의 밀고 밀리는 싸움을 벌여 왜적을 물리쳤다.

당교 전투는 의병진의 날카로움이 하늘을 찔렀다. 지형지물에 어두운 왜병의 약점을 작전에 이용, 돌을 굴리고 활을 날려 왜병 수백 명의 목을 베고 부대를 궤멸潰滅 시켰다. 당교 전투의 승리로 경상좌도를 통해 문경새재를 넘는 왜군의 북상(北上) 보급로를 차단됐다. 매헌공은 작전계획을 내고 인근 고을의 의병장들과 함께 터놓고 소통을 함으로써 희생은 최대한 줄였다.

701명 의사들이 참전한 영천성永川城 및 경주성慶州城 탈환전

임진왜란이 발생한 날로부터 104일째가 되는 날이다. 임진년(1592) 7월 26일부터 벌인 영천성 탈환작전엔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주력군 3천 명과 권사악(權士諤), 권사민(權士敏), 권응생(權應生), 권여정(權汝精), 그리고 죽림공(竹林公)의 5세손 권복시(權復始) 공(公) 등 죽림(竹林) 사정(司正) 공(公) 형제집 후손 의병장 등 경주 연일 흥해 의병들이 대거 참전했다.

손시. 최진립 장군과 좌우로 학익진(鶴翼陣, 학의 날개 모형 진세)을 친 매와공(梅窩公)과 권사민(權士敏), 권응생(權應生), 권복시(權復始), 이눌 공(公) 등이 지휘하는 의병군들은 영천성을 두고 공격을 벌여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가 지휘하는 왜(倭)의 주력부대를 깨고 성에 잡혀 있었던 백성 1,900명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등 임란사(壬亂史)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다. 인근 열 읍에서 모인 의사(義士) 701명이 동맹,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다 보니 대병력을 앞세운 가토 기요마사 군이지만 병력을 크게 손실, 대구 쪽으로 물러났다.

안동, 영천, 경주를 잇는 방어선이 구축되면서 상주 이남 지역 왜병(倭兵)의 보급로가 이때부터 완전 차단됐다. 선조 25년 9월, 관군과 의병진이 경주성을 왜군에게 내준 이후 최대 격전을 벌인 경주성 탈환전에서도 성을 되찾기까지 큰 군공을 세웠다. 역사는 이 전투를 두고 밀리기만 했던 조선군이 의병들의 도움을 얻어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벌여 왜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사기를 돋운 최초의 전투라고 적었다.

매헌공, 화왕산성에서 가등청정加藤淸正軍을 돌려 세우다

선조 30년(1597) 명(明)과 왜(倭)의 휴전협상(할지론, 경기 충청 영남 호남을 묶는 최초의 조선 분할론)이 결렬되자 정유년(丁酉年) 7月 12만 대군을 반으로 나누어 좌군은 전라도로, 우군은 경상도를 통해 북상하려 했었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와 모리테루모토(毛利輝元)가 이끄는 우군 6만 대군이 울산 서생포에서 출발, 북상하기 시작했다.

가토기요마사 군(2만 8백명)의 재침범을 막기 위해 곽재우(郭再祐) 장군이 이끄는 영남의병진은 해발 756m에 산세가 험한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배수진을 쳤다. 홍의장군(紅衣將軍) 충익공(忠翼公)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절충장군折衝將軍) 장군의 진을 스스로 찾은 매헌공은 의령 의병장 심대생(沈大生)과 좌우익이 되어서 '가토 기요마사' 군을 막았다.

대부대를 이끌고 산성 아래에 도착한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의 군세에 눌려 의병들의 사기가 일시에 무너진 것을 본 "경주 출신 의병장 권사민은 곽장군에게 이 성(城)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적에게 욕辱을 당할수는 없으니 섶을 쌓았다가 불여의(不如意)하면 불을 질러 함께 타 죽어야 합니다." 면서 결사항전을 제의, 주장(主將) 곽재우 장군이 이 작전 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여 성루와 성벽에 섶을 쌓고 결전을 독려했었다. 〈자료출처: 망우당기忘憂堂記 경주부慶州府의 임진항쟁사壬辰抗爭史〉

가토기요마사는 조선 의병진의 이 같은 수비전략에 놀라 공격 방향을 전라도로 돌려 조선군이 방어 전략을 다시 짜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당시 화왕산 회맹에도 숙질. 종형제간이었던 권사민, 권사악, 권응생과 죽림공 후손 소모장 권연(權濂 23世) 공(公)이 참전하는 등 영남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의병장과 의병 7백여 명이 합세했었다.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올린 두루마리 상소는 임란 참상을 기록한 자료이자 안진경(顔眞卿)과 비교될 당대 최고문장이었다

"모관 권사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도체찰사(都體察使,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인 상공합하(相公閤下)께 이 소(訴)를 올립니다. 영남에 침투한 왜적의 형세가 날로 횡포해져 고을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험악한 실정입니다.

임금(선조)은 의주로 행차하고 많은 사람은 흩어져 국가는 존망의 위험에 처해있고 군대는 한 달간의 양식도 없는 형편입니다. 듣건대 각 진(陣)의 장수들이 군보(軍保:군역을 면제해 주고 삼베나 무명을 받았음)와 아울러 납속(納粟:흉년이나 병란兵亂때 백성들이 나라에 곡식을 받치는 일)으로 충당케 해서 혹 벼슬도 주고 군역도 면하게 하였습니다.

비변사(備邊司: 임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군무까지 관할하는 중추기관)가 명령을 내려도 그 섬 수가 너무 많아 비록 내려고 해도 그 납곡(納穀)의 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울산·언양 등지의 적의 형세가 불꽃과 같이 치솟아 양민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변고는 한입으로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군사들이 굶주린 배로 적의 칼날을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주장(主將)들이 이런 궁핍한 사정을 조정에 아뢰게 되면 이름을 써넣지 않은 직첩(일종의 공명첩(空名帖)이다. 지방관이 일정한 양(量)의 곡식을 받고 성명을 써넣어서 전달한다.)을 나누어 주면 한 되의 쌀을 얻으면 한사람 군인을 살리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해가 더 커서 이미 주었던 직첩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두려울 때는 나를 품에 두었다가 편안해지면 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저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입니다. 군량(軍糧)이 비록 궁핍하더라도 진(鎭)의 장수들은 백성을 속이는 명령은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궁벽한 고을의 백성들은 신의가 없는 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착한 백성들은 칼날의 위세에 겁을 먹고 그 잔학함에 몸을 다쳐서 바람 소리와 가치 울음만 들어도 "왜적이 또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잠시도 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적진에 들어간 노인을 바라보고도 서로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계사년(癸巳年, 1593) 어간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도 곡식을 더 심하게 거둬들입니다. 백성(百姓)은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굶주림에 처해있는데도 각 진(陳)에서 군보(軍保→군역 대신 재물을 받는 부서)와 납속(納粟→나라에 곡식을 바치는 일)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 서신에서 의병장으로 창의(倡義)했던 임진년에서 계사, 갑오년으로 이어지는 전쟁 기간 민초(民草)는 금한 덩어리로도 곡식 한 줌 사기 어려운 실정을 가감 없이 적었다. 옛날에 자공(子貢)이 무기와 식량 중에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물어 가로대 "꼭 부득이해서 이 두 가지 중에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무기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먹는 것을 버려야하니 자고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백성에게 신의(信義)를 얻지 못하면 설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저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입니다. 평안하고 일이 없을 때도 상벌이 분명하고 삼가하거늘, 하물며 적과 대치하여 자웅(雌雄)을 가리지 못할 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건대, 난리 뒤로 수군(水軍)이나 육군(陸軍)에 종사하는 자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얻으면 그것을 군공(軍功)이라고 올리면 조정은 그 허실(虛實)을 따지지도 않고 벼슬과 상을 내렸습니다. 더러는 적 가운데 들어가 내통하며 관계를 맺다가 도리어 적에게 이용당하기도 했고 더러는 항복한 왜병을 끌고 와서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보(軍保)에 해당되는 백성과 납속(納贖)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체 금단할 뿐 아니라 1. 2년의 면역도 허락하지 않으니 이는 시종(始終) 나라를 받드는 정성이 도리어 적과 내통한 반민(叛民)에게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생각하고 돌아보건대 편안하면서도 위태함을 잊지 않는 것이 고금(古今)으로부터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좋은 계책일 것입니다. 저으기 두려워하건대 조정이 호령을 내리면 백성이 이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자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도체찰사 상공 합하께서는 나라의 대신이요. 백성의 부모이며, 조정에 들어가면 주공(周公: 고대 주周나라의 성인이자 조카 성왕成王을 보필, 주나라를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었다.), 소호(召虎: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신하로 회이 땅을 평정한 공신)같은 분이시니 이와 같은 일에 반드시 잘 처리하실 것이므로 외람스러움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제 말을 잘 살피시고 어진 마음을 드리워 채택하여 받아들여 주십시오. 황공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삼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만력 23년 1595년 9월 12일 권사민權士敏 성황성공근재록재배城皇城恐謹齋錄再拜 1,400자에 이르는 글이나 장지가 날고 훼손이 돼 109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도체찰사 서애 유성룡에게 보낸 매헌 선조의 상소를 뒷받침하는 당시의 참상 기록은 이렇다. 임진왜란 7년간 조선 백성은 지옥에서 살았다. 당시 조선에서 살았던 인구의 10%에 가까운 60만 명이 왜적의 조총과 칼에 죽거나 왜로 끌려 갔다.

히데요시의 광기는 일본 백성도 도탄에 빠뜨렸지만 조선 백성은 지옥의 바닥까지 밀어 넣었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놓친 조선 조정은 여전히 당파싸움에 매달린 사대부의 나라이었던 반면 민간에선 노래하고 춤추는 무당 흉내를 내는 패거리와 갓, 도포를 입은 한양 선비들이 떼로 미친 짓을 일삼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들은 나라가 위태롭고 망해가고 있어서 우는 거라고 적었다.〈조경남 난중잡록1, 1588〉 당시 거지가 드물었다. 두어 달 사이에 굶어 죽었기 때문에 걸식하는 사람이 보기 드물었으며 혼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짐승처럼 쫓아가 죽여 잡아먹어 사람의 씨가 말라 버리겠다.〈오희문 쇄미록 갑신일기〉

명장 신립(申砬, 1546~1592)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무시무시한 천혜의 요새인 문경새재를 노래하고 춤추며 통과한〈징비록: 급及 가무이과歌舞而過〉 왜군을 탄금대에서 맞았다. 조총의 위력을 몰랐던 조선 장수는 탄금대에서 기동력으로 한판승을 기대했으나 여지없이 깨졌다. 탄금대 논바닥은 진흙탕이다.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선군을 도륙했다.

그사이 임금 선조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야반도주 했고. 그해 6월 용인전투에서 6만의 조선군은 해군장수 와키자카 야스히루(脇坂安治)가 이끄는 일본군 1,600명과 맞붙었다. 하삼도(경상. 충청. 전라)에서 올라온 급조된 병력이지만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광'은 병력 수만 믿고 자만에 빠졌을 때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녁 무렵 왜군이 나타나자 충청 병사 신익이 먼저 도망쳤다. 6만 군사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형세를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으랴. 병기와 갑옷 양식을 버린 것이 온 산에 널린 것을 왜적이 태워 버리고. 남은 것은 골짜기에 숨었던 백성들이 주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박동량, 기재사초/ 임진일록 7월〉

농사를 짓다 올라온 양민이어서 처음부터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당시 삼도관찰사인 김수, 이광, 윤선각은 평안도에 피신을 간 선조에게 '조정에서 계책을 보내 달라 "고 할 정도로 무능했으니 무너지는 것이 당연했다.〈1592년 6월 1일 선조수정실록〉

아비 자식을 믿지 못하고 양식을 구걸하는 민초들의 삶은 백골로 나타났으니 그 민심의 흉흉함은 전쟁 이상이었다고 적었다. -매헌梅軒 선조의 두루마리 상소문은 이런 전란의 실상을 직접 보고 체험한 기록이었다. 같은 실상을 전쟁이 끝난 후에 적은 징비록(懲毖錄: 1604년 유성룡이 지은 임란 7년 전쟁 수기)보다 훨씬 앞섰다. -

당대의 문장가 류영로(柳榮魯)가 쓰신 매헌실기梅軒實記 발문에서도 "공의 글은 전란 속의 조정이 백성들에게 더는 신의(信義)를 잃지 않도록 걱정하는 충의(忠義)정신이 가득히 담겨 있었다고 적었다.

〈3월호에도 이어집니다〉

동산東山 권영태權榮泰 선생 "동산문고東山草稿 3집三輯" 발간

동산 권영태 선생

동산東山 권영태(權榮泰, 계유생癸酉生, 93) 선생은 시조 태사공 권행(權幸)의 36세 손(孫)이고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선생 근(近)의 20세 손이고 양정공(養亭公) 성(惺)의 주손(冑孫)이며, 임오문과(壬午文科)에서 장원(壯元)을 하신 독헌공(獨軒公) 집(緝)의 10世 손으로 상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일제(一齊) 남장섭(南章燮)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면서 퇴계(退溪)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동산 선생은 2000년부터 24년간 상주향교(尚州鄕校)에서 경전(經典)을 강학(講學)하면서 많은 문인(門人)들을 길러냈으며, 지금도 후학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동산 선생은 전국한시백일장(全國漢詩白日場) 심사위원장, 전국창홀대회(全國唱笏大會) 심사위원장, 상주담수회장(尚州淡水會長), 함창유도회장(咸昌儒道會長), 도남서원(道南書院), 옥동서원(玉洞書院) 등 12개 서원(書院)의 원장(院長)을 역임하였다.

동산 선생이 발간한 "동산초고東山草稿 1, 2, 3집輯"에는 시(詩)·서(序)·기(記)·논(論)·설(說)·수운(壽韻)·만사(輓詞)·제문(祭文)·묘갈명(墓碣銘)·상량문(上樑文)·행장(行狀)·통문(通文)·고유문(告由文)·축문(祝文)·발문(跋文) 등 1,500여 수의 시문(詩文)을 실었다.

동산 선생은 도산별시(陶山別試) 전국한시백일장 장원(壯元), 예천군정청염송(醴泉郡政淸廉頌) 전국백일장 장원, 성균관(成均館) 조선조과거대전(朝鮮朝科擧大典) 을과(乙科), 병과(丙科) 급제(及第), 운현궁전국백일장(雲峴宮全國白日場) 등 전국 규모 각종 대회에서 150여 회 수상하였다. 동산 선생은 9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시(漢詩)를 공부하는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동산 선생은 "상주한시집尚州漢詩集" 서(序)에서 시인의 사명은 '시인(詩人)의 책무(責務)가 풍자세태(諷刺世態)하여 고동인심(鼓動人心)하며 감발선심(感發善心)하여 흥기사문(興起斯文) 함에 있다'

고 하였다. 권태을(權泰乙) 교수는 동산 선생의 시는 '세계평화와 통일한국을 위한 기원, 국력신장과 미풍양속의 회복을 위한 염원, 가치관 정립과 공생공영의 홍익이념 실현을 위한 열원(熱願), 숭덕존현(崇德尊賢)과 유도진흥을 위한 성심과 언지(言志)로서의 서정시(敍情詩) 등이 시화(詩化)되는 과정에서 세태 비판과 풍자는 현실의 시비, 선악, 미추, 수박(粹駁), 정조(精粗)가 다 드러나 오늘의 시대상이 여실히 투영된 풍요(風謠)'라고 하였다.

동산 선생이 도산별시(陶山別試)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장원한 시(詩)를 소개한다.

"시사단회고試士壇懷古"

陶山別試適宜時 도산별시적의시
도산별시가 때에 적합하니
吾道綿綿德化知 오도면면덕화지
오도가 면면히 이어져 덕에 감화됨을 알겠다.
萬歲難忘懷聖主 만세난망회성주
만세토록 잊기 어려운 것은 착한 임금을 생각하고
千秋共感慕賢師 천추공감막현사
천추에 공감하는 것은 어지신 스승을 사모함이다.
望壇未聞絃歌頌 성단미문현가송
시사단을 바라보니 현가소리는 들리지 않고
仰廟如看揖讓儀 앙묘여간읍양의
사당을 우러러보니 읍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不染西潮儒敎振 불염서조유교진
서양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유교를 떨치니
東方文物復興期 동방문물부흥조
동방의 문물이 부흥함을 기약하리라.

권세환 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용주 제15대 안동유도회장 취임

권용주 마애선생유적보존회 회장이 1월 10일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성균관유도회안동지부 제15대 안동유도회 회장에 취임했다. 권용주 회장은 퇴계 선생이 강직하고 공명정대한 마애를 애도하는 만사(輓詞)에서 "당당한 대궐에서 일찍이 우뚝한 동량이었네堂堂大廈棟曾隆. 천 번 달군 진귀한 보배는 녹이기 어렵고千燒至寶難鎔化. 백 번 정련한 굳센 철은 꺾이지 않았다네百鍊精剛未挫鋒. 라고 칭송했던 마애(磨崖) 권예(權輗, 21世, 1495~1549) 선생의 후손이다. 권 회장은 '마애 선생 유적보존회' 회장으로서 마애 선생의 유적 보존과 정신 선양에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몇 해 전 "국역 마애선생실기"를 번역케 하여 2021년 11월에 '마애 권예 선생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권 회장은 안동권씨 대종회 전례위원으로 수년 동안 봉직하며 시조 태사공 춘추향제 등을 봉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 안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태사묘의 부위원장으로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과 안동김씨 시조 및 안동장씨 시조를 배향하는 향사에 지극 정성을 다하는 숭조정신으로 수년 동안 태사묘 운영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안동 유림사회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 이번에 안동유도회 회장에 취임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년 부호장공파 임원회의 일원정에서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운영위원 3명은 개인 볼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헌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을사년 올해는 무엇보다도 운영위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제108회 부호장공파 정기총회는 오는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동권씨회관에서 개최하며 기념품은 짧은 우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년 교례회비는 파종회 명의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임원 회의비와 감사 수당은 1만 – 2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4년 결산에서 정기예금 이자 증가, 경로행사 및 파조 향사 때 성금답지, 모래 채취금 등으로 수익금이 조금 늘

어났다고 보고했다. 기타 토의에서 종원(宗員) 사망 때만 조화를 지급하고 부인이 사망했을 때는 조화를 보내지 않기고 했다.

임원회의가 끝나자 안동시 태화동 '농민후계자식당'으로 이동,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